

◆ 14-9평 A형 34~37번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의 고객은 왜정 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속에 드는 층들이어야만 했다.

⑦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ته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물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1·4후퇴 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셋방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오십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이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⑧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십팔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두 시 사십 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이십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살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 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삼십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갔지만 시계 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이십 대 홍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 시대,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의 ⑨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십칠 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 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짹각째각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는 각로(角帽)와 쓰메에리(목단이)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 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

(중략)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레벌떡이며 이야기하는 혜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깜빡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혜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⑩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 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틀을 끄집어내었다.

國語常用(국어*상용)의 家(가).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⑪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멋진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환자는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 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커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 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고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⑫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 전광용, 「꺼빼딴 리」 -

* 월삼: 미국 시계 회사 '월삼'.

* 국어: 일본어를 가리킴.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인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35.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빈틈없고 까다로운 인물임을 보여 준다.
- ② ⑨: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의 사려 깊은 자세를 보여 준다.
- ③ ⑩: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기쁜 마음을 감춘 채 사태를 주시하는 주인공의 침착한 태도를 보여 준다.
- ④ ⑩: 시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을 보여 준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웃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일제 강점기부터 6·25 한국전쟁 이후까지 격동기를 살아온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독자에게 인물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작품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① '왕진 가방'은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로서 유랑 생활의 고단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형상화한 소재이다.
- ② 인생의 반려로 비유된 '시계'는 역사적 흐름을 한 인물의 삶에 담아 표현해 줄 수 있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이다.
- ③ '비상용 캐비닛'은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화해 주는 소재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주인공의 주도면밀함을 보여 주는 사물이다.
- ④ '신사복'은 주인공이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가졌던 희망찬 기대를 표상하는 소재이다.
- ⑤ '라디오'는 소련군의 입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는 소재로, 주인공이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제시해 준다.

37. ①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② 내우외환(內憂外患)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④ 사생결단(死生決斷)
- ⑤ 생사기로(生死岐路)

◆ 03년 6월 고1 51~55번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다.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 삼면으로 눈을 옮겼다.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원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 있다.

그는 코허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이차 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 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얘, 너 그 노여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식아, 별 수 없다. 왜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여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 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아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이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낫세로야 그걸 못 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구 별것이겠니,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두 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텐코프 소좌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거저 표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채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쩔라구…….”

“가만있어요, 호랑이 굴에 가야 새끼를 잡는 법이오.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 봅시다.”

“그래도 저 어린것을 어떻게 노서아까지 보낸단 말이오.”

“아니, 중학교 아들도 가지 못해 골들을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라구.”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괜한 소리, 쟤가 소련 바람을 쏘이구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할 거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 번 살아 봅시다.”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시키고 그는 아들의 유학을 관찰하였다.

‘홍 혁명 유가족두 가기 힘든 구멍을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구 보자…….’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그 다음해에 사변이 터졌다.

잘 있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왔지만 동란 후 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대로였다.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크카리(스크랩)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 내려갔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 자식은 무얼 꾸물꾸물하느라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답……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의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명추 같아…….’

그는 신문을 포개어 되는 대로 말아 쥐었다.

‘개천에서 용마가 난다는데 이건 제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그는 혀를 찍찍 갈겼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중의 압력이 퍼져 갈 터인데……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그는 자동차에서 내리자 전가래침을 내뱉었다.

‘독또오루 리,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스텐코프의 목소리가 고막에 와 부딪는 것만 같았다.

- 전광용, 꺼빼딴 리 -

51. 윗글의 서술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중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작품의 주인공이 직접 체험한 사건을 고백하듯이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의 주변 인물이 카메라의 눈처럼 작중 상황을 외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와 작중 인물이 번갈아가며 사건 전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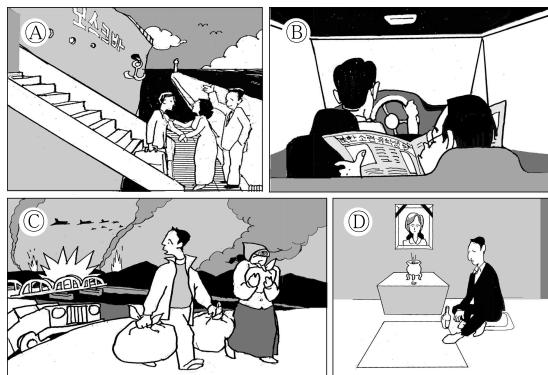
52.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은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반영이다. 따라서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대상 세계의 진실한 모습을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① 소설 속의 사건은 일정한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과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기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② 소설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작품을 통해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 글은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③ 소설은 사건과 관련된 갈등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그 해소 과정을 다룬다. 이 글은 현실 대응 방식과 관련하여 인물간의 갈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편이다.
- ④ 소설은 독특한 표현 방식을 통해 사건이나 인물을 서술하게 된다. 이 글은 전혀 박사답지 않은 인물에게 ‘박사’, ‘독또오루’ 등의 호칭을 부여하여 오히려 인물의 본색을 부각시키는 반어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⑤ 소설의 인물은 그 성격에 따라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눌 수 있는데, 전형적 인물은 사회의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공통된 성격을 대표한다. 이 글의 주인공은 자기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지식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53. 윗글과 관련하여 삽화를 그려 보았다.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A ⇒ B ⇒ D ⇒ C
- ② A ⇒ C ⇒ B ⇒ D
- ③ A ⇒ C ⇒ D ⇒ B
- ④ C ⇒ D ⇒ B ⇒ A
- ⑤ D ⇒ A ⇒ C ⇒ B

54. [A]와 유사한 삶의 태도가 드러난 것은?

- 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렁칡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 이방원 -

- ② 내게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의(義) 아니면 죽지 말니.

- 변계량 -

- ③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들어 잡든 매화를 침노한다.

- 안민영 -

- ④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一到滄海)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 황진이 -

- ⑤ 말 없는 청산(青山)이요 태(態) 없는 유수(流水)로다.

값 없는 청풍(青風)이요 임자 없는 명월(明月)이라.

이 중에 병(病) 없는 이 몸이 분별(分別) 없이 늙으리라.

- 성 혼 -

55.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② 남편은 우격다짐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다.
- ③ 아내는 다가올 사태를 애써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남편은 세태 변화를 평계로 아내의 동의를 종용하고 있다.
- ⑤ 아내는 과거 경험을 근거로 남편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 13년 6월 고2 A형 40~42번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다.
일 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 삼
면으로 눈을 옮겼다.

북한(北韓) 소련 유학생(蘇聯留學生) 서독(西獨)으로 탈출
(脫出).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원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
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 있다.

그는 코허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어차 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애, 너 그 노여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식아, 별수없다. 왜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여가 또 판을 치지 않니. ⑦고기가 물
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 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
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아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
다.

“내 나이로도 이제 이만큼 뜨내기 회회쯤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낫세로야 그걸 못 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구 별것이겠니,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
만 하면 그것들두 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텐코프 소좌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거저 표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재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쩔라구…….”

“가만있어요. ⑤ 호랑이두 굴에 가야 잡는 법이오.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A] “그래도 저 어린것을 어떻게 노서아까지 보낸단 말이오.”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들을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라구.”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괜한 소리, 재가 소련 바람을 쏘이구 와야 내게 허튼 소리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 할 거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살아 봅시다.”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시키고 그는 아들 유학을 관철하였다.

‘흥, 혁명 유가족두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구 보자…….’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그 다음 해에 사변이 터졌다.

잘 있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왔지만 동란 후 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대로였다.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치키리*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 내려갔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 자식은 무얼 꾸물꾸물하느라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 담……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의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명추같이…….’

그는 신문을 포개어 되는 대로 말아 쥐었다.

‘개천에서 용마가 난다는데 이건 제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 야…….’

그는 혀를 찍찍 갈겼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중의 압력이 퍼져갈 터인데……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그는 자동차에서 내리자 건 가래침을 내뱉었다.

‘독또오루(닥터) 리,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스텐코프의 목소리가 고막에 와 부딪는 것만 같았다.

– 전광용, 「꺼빼딴* 리」 –

* 다치키리: 신문의 조각 면을 가리키는 일본말.

* 꺼빼딴: ‘우두머리 또는 죄고’라는 의미의 러시아어 ‘꺼빼딴’이 와전되어 표기된 말.

40.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3점]

- ① 이인국의 아내가 죽음.
- ② 이인국이 동란 후 월남함.
- ③ 이인국의 아들이 의대에 입학함.
- ④ 이인국의 아들이 소련으로 유학을 갑.
- ⑤ 이인국이 자동차 안에서 신문을 읽음.

41.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꺼빼딴 리」는 서술의 초점이 극명하게 주인공에게 맞춰진 인물 소설이에요. 서술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인국이라는 인물의 부정적 속성을 형상화하면서 이를 통해 독자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성찰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서술자가 [A]를 통해 형상화하려는 부정적 속성은 무엇일까요?

- ① 불안정하고 예민한 정서
- ②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말투
- ③ 운명에 순응하는 체념적인 태도
- ④ 과거에 집착하는 고루한 가치관
- ⑤ 자기 중심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성격

42. ⑦과 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동일한 대상을 깨우치고 있다.
- ③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14-6평 A형 34~37번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쑥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⑦ 몰려 닫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지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 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⑧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 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었다.

“옳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은 올리던 것이었었다. 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곱 십곱 비싸졌다. 그러니 ⑨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힐! 그놈에 경제엔 다 어디루 가 훼겼어. 독립은 우라진다구 독립을 현담.”

석양 때 신기료 채찍 어깨에 멘 채 횃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계걸거렸다.

[중략 줄거리] 영어 실력 덕에 미군 통역관이 된 방삼복은 권력을 얻는다.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해방 이후에 모두 빼앗긴 백 주사는 방삼복을 만나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한다.

⑩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보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번 어깨가 옴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데다 이 너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굽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 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⑪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 라면야 코빼들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속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씨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 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 주사는 끝을 끊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구섬 죄다 불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일랑 목을 썰어 죽이구, 다른 놈들일랑 빠다구가 부러지두룩 두들겨 주구. 끓어앉히구 항복 받구. 그리구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 다 찾구. 집허구 세간 쳐부신 것 말끔 다 물리구……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씨다 빙.”

“염려 마슈.”

미스터 빙은 선뜻 깨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머, 지금 당장이라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앰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발을 만들어 놓니다, 쑥발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서연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빙의 손목을 덤쑥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깽그리 죽여 놀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휙말이 아니라 참 ○○○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

미스터 빙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꺽 꿀꺽 양치를 한다. ⑫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빙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쳐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 체만식, 「미스터 빙」 -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각종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각종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35.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⑦: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인물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다.
- ② ⑧: 치안 부재의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인물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다.
- ③ ⑨: 물가 상승으로 대표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다.
- ④ ⑩: 전통 윤리를 회복해 타락한 세태를 견뎌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⑤ ⑪: 새로운 생활 문화를 체험하며 나타나는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표현한다.

36. 다음 학습 활동에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감상의
길잡이

이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알아보자.
- 해방 직후의 서울
- 작중 인물의 태도를 살펴보자.
- 방삼복은 해방된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
- 백 주사는 물력을 가져온 현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 백 주사는 갑자기 출세한 방삼복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임.
- 작중 인물과 시대 현실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자.
[A]

- ① 방삼복의 출세를 통해 해방 직후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② 백 주사의 물력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변화의 부당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③ 현실에 대한 백 주사의 부정적 태도를 통해 그의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④ 현실에 대한 방삼복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통해 그의 현실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⑤ 방삼복에 대한 백 주사의 이중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37. ①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찡 먹고 알 먹는다.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③ 소 읊고 외양간 고친다.
④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 23-6평 28~31번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니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전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둔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희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결 십만 원에 불하 말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둔 만 원이? 엠병혈 자식, ①내가 엠피*현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종으로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둈이 살아나구, 살 둈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봐라……. 종종 따근하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①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웃이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①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멜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편이었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켤레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C] 어치의 웃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나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첨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자인들한테 팔 할 [D]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늙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E]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가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올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④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페풀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리고는 ⑤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온 것이었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⑥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⑦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테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굽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⑧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엠피(MP): 미군 현병.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돋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딥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엉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엘렬렬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품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있었더란다’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 16-9평 A형 39~42번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후 '나'는 벗인 '방(方)'과 함께, 장춘에서 서울에 이르는 귀로에 오른다. 회령에서 우연히 '방'과 헤어진 '나'는 수성에 이르러 범장어를 잡아 파는 한 소년을 만난다. 이후 '나'는 '방'과 재회하기 위해 청진에 도착하여 어느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노인은 대 끝으로 국 솔을 가리키며,

“이런 걸 하던 것도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마는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여름, 처음 얼마 동안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으면 하다가 늘 그러구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살이*를 들어갔지요.”

[A] “네에, 그러세요.”

“그 긴 다섯 해 동안을 그저 모진 일과 고단한 잠만으로 지어 나아오다가,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야 얼마나 앞이 아득하겠어요.”

“그러셨겠습니다.”

“사람의 가죽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새끼 몇 되던 것 하나씩 둘씩 이리저리 다 때우기는 하였지마는, 그런 펜들 왜 안 그럴 수야 있었겠나요마는, 이제는 힘을 줄 테라고는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저 죽어 없어졌는데도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모진 것이니.”

[B]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 번 내달으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겉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가는 사람도 다 제 명이 아닙니까.”

하여 드리니까 그는,

“하기야 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들 그럴 수야 있습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살인 강도 암질*이라도 다 옥문을 걷어차고 훨훨 뛰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였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차빠져서 다들 무릎을 끊었지마는, 무릎 끊은 놈들의 끌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그려.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잊어버릴 건 다 잊어버리고 못 먹고 깊주리어 페꼴이 상접해서 현 너줄떼기에 깽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업고 암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꿀들—어디 매가 갑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딥니까.”

“.....”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낮에 보면 이 조그만한 장터에도 그 헐벗은 깊주린 것들이 뜻문히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지*인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 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참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깊은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그러자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작거리는 ④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러고는 말을 끊고 흐웅 깊은 한숨을 들여 쉬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품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옇게 통통 부어오른 낮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형겼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업고, 달리우고, 잡힌 채, 길 바추에 [A] 비켜 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우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퍼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퍼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전녀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척지척 걸어 들어와 광주리며 힘지며, 채두랭이 같은 데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나와, 혹은 섯기도 하고, 혹은 앉았기도 한, 여인 행상꾼들 앞을 지나쳐오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발부리에 놓인 광주리의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 개에 오 원씩.”

행상의 여인네는 허리를 꾸부리어 광주리에서 속에 담기었던 배 한 개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을 활짝 퍼서 일본인 아낙네 눈앞을 가리우매,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리운 활짝 편 그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뒤에 달린 여덟 살 난 사넬미*가 엉젓바치를 움켜잡고 비어 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두어 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당기었다. 그리고 업힌 것이 떤 땅개*에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 뻗으며 어미의 어깨 너머를 솟아오르려고 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세 어린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말로 이러며 고개를 개우듬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애걸이 없었다기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나.

- 허준, 「잔등(殘燈)」 -

* 고궁살이: 고공살이. 남의 집 살이.

* 암질(暗質): 어리석은 천성이나 성질.

* 허친거리며: 밭을 헛디며 균형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쓸리며.

* 고무산, 아오지: 함경북도에 있는 곳으로, 고무산은 농산물과 목재의 집산지였고 아오지는 석탄 산업 시설이 있었음.

* 사넬미: 사내아이의 방언.

* 땅개: 주로 아이를 업을 때 쓰는, 너비가 좁고 기다란 천을 이르는 방언.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인'은 '그 애'가 죽기 전에는 고공살이를 경험한 적이 없다.
- ② '아이 몇 잃어버리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
- ③ '행상의 여인네'는 '일본인 아낙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과일을 주었다.
- ④ '노인'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 옥중에서 죽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 ⑤ '사낼미', '어린 계집아이', '업힌 것' 등 '세 어린것'은 '행상의 여인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40. 다음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활동 다음을 작가가 작성한 창작 노트의 일부라고 가정하자.
⑦~⑩이 [A], [B]에 실현된 양상을 파악해 보자.

- ⑦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낼 것.
- ⑧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⑨ 서술과 대화를 결합해 사용할 것.
- ⑩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할 것.
- ⑪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다양화할 것.

- ① ⑦은 [A]에서 '노인'과 '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실현되었군.
- ② ⑧은 [B]에서 '사람의 가죽은 질기다고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 ③ ⑨은 [B]의 '마음이 ~ 하였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과 대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⑩은 [B]에서 '긴 한숨을 겪었지 못하였다'를 통해 실현되었군.
- ⑤ ⑪은 [A]와 [B]에서 동일 인물을 '그 애', '그것', '그놈'으로 바꾸어 부르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41. ①을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회상을 통해 떠오른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나의 회상 속에는 '자기'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나의 회상을 통해 현재의 '자기'가 과거 속의 자아를 부정하고 있다.
- ④ 나의 회상을 통해 인물이 처한 실제의 상황을 환상적 분위기로 그려내고 있다.
- ⑤ 나의 회상 속에는 인물의 현재의 처지와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잔등」에서 서술자인 '나'는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잔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삼자의 정신'이란 말은 이를 암시한다. 또한 귀로에서 접한 인물들을 통해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측은지심을 드러냄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나 잔류 일본인 등과의 만남은 주목할 만하다.

- ① '일본인 아낙네'의 아이들이 '야단'인 모습을 '비참'하다고 한 것에서, '나'의 객관적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일본인 아낙네'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행상로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린 것에서, '나'가 '노인'의 마음을 해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 ③ '노인'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들의 처지가 바뀐 것을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한 말에서, '노인'이 그들에 대해 연민을 느꼈음을 알 수 있어.
- ④ 잔류 일본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을 '측은한 표현'이라 한 것에서, '나'가 제삼자의 정신에서 벗어나 관용의 자세까지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일본인 아낙네'가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행상의 여인네'의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15년 10월 고3 A·B형 공통 41~45번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현세는 샛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우연히 만난 옛 친구인 두갑이는 어떤 집의 주인이 샛방 사람들을 내보내려 하는데 그들이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 현세가 그 집을 구매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 준다면 그 대가로 방을 내어 줄 것을 약속한다. 고민 끝에 현세는 집을 구매하는 적하여 결국 사람들을 내쫓고, 구문*을 지불하기 위해 집주름* 영감을 만난다.

“선생님, 이러지 마시구 좀 더 생각해 주셔야죠.”
하는 것이었다.

“그만하든 되니 않습네까?”

“선생님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신 집이야 그저 읊으셨죠. 어제두 요 뒤에 집 매매가 있었는데 매 칸에 꼭꼭 일만 오천 원씩에 팔렸죠. 그런 데 비기면 그저지 뭘니까. 거 다 선생님 복이시지만, 내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그렇게 짜게 사셨다는 것두 생각하셔야죠. 그리구 전에 두 잠깐 말씀드렸지만서두 일이 성사만 되게 허느라구 저편에서는 일 전 한 푼 못 받았습죠. 그뿐인가요, 전재민*으로 오신 선생님네 하루라도 속히 이사 오시두룩 허느라구 **샛방 사람들** 방 내는 텐 을마나 또 속을 썼다구요. 선생님두 그날 같이 가셨으니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동안 내가 하루에 두 몇 번씩 그 노파 성화를 받았는지 모르죠. 정말 이번에 학질 뺐습니다, 학질 뺐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나 아니면 절대로 샛방 사람들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다 선생님네 하루라도 속히 이사 오시두룩 허기 위해 현 게 아닙니까. 그러니 선생님이 이런 거 다 생각해 주셔야 합죠.”

샛방 사람들 내보내는 데 힘들었다는 것은 집주름 영감의 말대로 그렇다 해도, 저편 집주인의 구문은 물론 샛방 사람들 방 얹어 내보내 준 삶까지 모두 두갑이의 말대로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어찌됐건 현세는 이 일을 어서 끝내고만 싶었다.

“우린 전재민이 아니잖아?”

“그런 말씀을…… 어디 전재민이구 전재민 아니구가 있나요. 선생님 곁은 이현테 비기면 우리가 전재민이죠. 수다한 식술에, 식구가 자그만치 열넷이랍니다. 벼는 사람이라군 이 늙은 것 혼자구 그나마 조금씩 보태든 아들 녀석은 턱 앓아눕지를 않았수. 그런데다 엊그제 또 며늘애가 몸꺼지 풀어 놨으니, 그래 우리 성한 사람이야 어쨌건 않는 사람 죽술이나 허구 애아미 미역국이나 끓여 먹여야 허잖겠수? 선생님 그러시지 마시구 좀 더 생각해 주십쇼.”

그러는 늙은 집주름의 열굴은 온통 땀투성이가 되고 눈도 충혈이 돼 있었다.

현세는 문득 자기네도 미역 이파리나 사 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현세는 이 늙은 집주름에게 이번 집 매매의 내막을 톡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세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경황도 경황이려니와 우선 그럴 기운이 없다는 걸 느꼈다.

현세가 그냥 걷기 시작하니까 집주름 영감은 다급하게,

“아니 선생님, 다른 건 다 그만두구 보통 구문대루 일 푼만 친대두 천 원이면 십만 원에 대한 구문밖엔 더 안 되지 않수? 어디 그래서야 되나요.”

하고 수표를 도로 돌려주기라도 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현세는 두갑이가 말한 찰거머리라는 말과 잡아뗄 적에는 딱 잡아떼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으나 그보다도 이제는 더 서서 말할 기운조차 없어 그냥 걷기만 했다. 이 현세의 태도가 늙은 집주름에게는 또 혹시 수표를 내준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갈 것같이 보였던지 탄원하는 어조로,

“그럼 선생님 다시 잘 생각해셔서 처분해 주십쇼. 그럼 조심해 가시우.”

하면서 꾸뻑꾸뻑 절을 했다.

퍽 구름이 걷힌 하늘 아래서 현세는 이제는 다리만 허청거릴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아까보다 아주 흐리어졌다. 눈을 가느느름히 뜨면 좀 낫게 보이지만 그렇게 눈을 가느느름하게 하면 그러지 않아도 자꾸 들어만 가는 눈이 절로 찌嬖득하니 감기어지며 쓰린 눈물이 내배는 것이었다.

(종략)

“그런데 말야, 자네에게 미안한 말 하나 하게 됐네.”

한다.

현세는 왜 그런지 가슴이 섬뜩함을 느꼈다.

“저, 다른 게 아니구 말야, 집권이 자기네가 방을 다 써야 될 일이 생겼다누만.”

현세는 종내 가슴이 철렁 무너앉을밖에 없었다.

두갑이는 바지 뒤 포켓에서 십 원짜리 한 묶음을 꺼내 현세 앞에 놓으며,

“그래 미안하다구 하면서 이걸 보내네. 정말 안됐네. 좋은 일 하려다 되레 자네한텐 원망 듣게 됐어.”

그리고는 살피듯이 현세를 한 번 바라보고 나서,

“글쎄 첨엔 단돈 오백 원을 내놓지 않겠어? 그래 내 고함을 질렀지. 그 사람이 돈이나 오백 원 바래구 그런 승한 광대놀음 할 사람인 줄 아느냐구. 당신 눈에는 오백 원이 대단해 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전재민이라두 이런 돈 없이 두 사는 사람이라구 해 줬지. 그랬더니 오백 원을 더 내놓두만. 서울깍쟁이라더니 정말……”

사뭇 분개해 하는 말투요 표정이었다.

현세는 또 이 두갑이의 분개해 하는 말투와 표정과는 달리 가슴속 한가운데서 누구에게라 없이 악이 머리를 들고 일어남을 느꼈다. 그것은 뱀같이 독이 오른 대가리였다.

“하기야 요즘 아무리 돈 가치가 없애두 천 원이든 적잖은 돈이지. 그리구 말야, 자네 방 문젠 내 또 알아봄세. 빨 벗구 나서든 그까짓 방 한 칸쯤 문젠가. 내 꼭 책임지지. 아예 이번 집에 못 가게 된 거 서운하게 생각 말라구. 되레 잘되는 일인 지두 몰라. 교통두 불편하구 더구나 요새 그 집권은 돈냥이나 벼니까 뭣 부족할 것 없이 들여다 먹는데 말야, 한집에서 그걸 보구 어떻게 견디나. 내 자네 있기 준 방 하나 구해 주지.”

현세의 악은 이제야 분명히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이 두갑이에게 향해짐을 느꼈다. 그저 이놈의 우뚝한 코를 평안도식으로 한 대 지끈! 그러나 그것은 벌써 이미 **다 죽어 가는 실뱀의 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두갑이가 윗몸을 현세 앞으로 내밀더니 돈 묶음을 들어 엄지 손가락으로 한 편 끝을 물어 쥐었다가 펠려펄려 놓아 주면서,

“요새 십 원짜리 2호에 가짜 돈이 많다네. 그래서 여긴 2호 짜린 한 장두 받아 오지 않았지.”

그러는 두갑이의 두꺼비 입에서는 또 불고기와 소주와 마늘을 먹은 뒤에 나는 냄새가 풍기어 왔다.

현세는 종내 이 두갑이의 입김에 못 견디어 도망이나 하듯이 그곳을 나오고 말았다. 저도 모르는 새 돈 묶음만은 집권 채. 두갑이의, 자기는 이 다방에만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만나자는 말을 면 메아리처럼 등 뒤로 들으면서.

— 황순원, 「두꺼비」 —

* 구문: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 집주름: 집을 사고팔거나 빌리는 흥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전재민: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들의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혼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시대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4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B]에는 모두 현세를 위해 행한 노력이 강조되어 있다.
- ② [A], [B]에는 모두 자신과 현세가 처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 ③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 ⑤ [B]와 달리 [A]에는 현세의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표현되어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현세는 일제 강점기에 만주 일대를 떠돌다 해방 이후 큰 기대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전재민이다. 해방 후 혼란으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전재민들은 동포들에게 조차 이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궁핍하고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작품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덕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혼란한 현실에서 공동체 의식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 ① 집주름 영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바로 세우려 했던 현세의 고뇌에 찬 '눈물'을 통해 도덕이 무너진 혼란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 ② 자신의 '악'이 '다 죽어 가는 실뱀의 악'일 뿐임을 깨닫는 현세에게서 당대 현실 속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전재민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 ③ 두갑이에게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돈 끊음만은 집어 쥔 채' 자리를 떠나는 현세에게서 전재민의 궁핍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 ④ '우린 전재민이 아니에까?'라는 현세의 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동포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전재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⑤ 자신의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처지의 '셋방 사람들'을 내쫓는 역할을 한 현세에게서 도덕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우리 설화 속에서 두꺼비는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대상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동물로 자주 등장한다. 또한 우리 전래 동요에서는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비는 등 두꺼비를 기원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두꺼비 이미지를 변형하여 '두갑이'라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 ① 설화의 두꺼비가 강자 앞에서 나약했던 것처럼, 윗글에서도 두갑이를 집주인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것으로 그려냈군.
- ② 설화에서 두꺼비가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과 달리, 윗글에서는 현세가 두갑이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구성했군.
- ③ 설화와 전래 동요에 두꺼비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윗글에서도 독자들이 두갑이에게 희망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했군.
- ④ 설화에서 두꺼비가 정의로운 존재로 여겨진 것과는 달리, 윗글에서 현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두갑이가 이용했을 뿐임을 깨닫는 것으로 설정했군.
- ⑤ 전래 동요에서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기원한 것처럼, 윗글에서도 현세는 두갑이가 방을 얻어 주리라는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으로 구현했군.

45.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주름 영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세는 기진맥진(氣盡脈盡)해 있군.
- ② 현세는 두갑이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군.
- ③ 집주름 영감은 현세에게 돈을 더 받기 위해 애걸복걸(哀乞伏乞)하고 있군.
- ④ 집주름 영감의 말에 나타난 집주름 영감의 집안 상황은 가히 설상가상(雪上加霜)이군.
- ⑤ 두갑이는 현세에게 자신이 나중에 방을 얻어 주겠다며 호언장담(豪言壯談)하고 있군.

◆ 09-9평 47~50번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둠이 쪽 깔려 간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붙은 구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떨밀으로 떨어져 흘어졌다. 그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다. 그는 즈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지를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어머니 —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순간 ‘아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라는 ⑦신문 구절과 함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 얼굴과 겹쳐서 [A] 떠올랐다. 그러나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 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다.

‘이미 우리는 ⑧조국을 위해서만이 있는 몸이다. 지금의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야지.’

약 이 개월 전 일이었다. 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결사에서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클랙슨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 오고 있었다. 정각에서 삼십 분 전. 야광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⑨클랙슨 소리가 다시 짧게 울렸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연기는 안 돼. 생각해 봐.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나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는 경우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은 삼이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다. 알겠지? 어머니는 우리가 맡을 테다. 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우리들 이 아니나.”

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음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중략)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천장이 쭉 치져서 내려앉은 ⑩방 안은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끓어 앉았다. 고개를 약간 모로 눕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 가는 모닥불처럼 희미하게 등진 불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노파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간신히 흔들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의사가 왔대어요?”

그러나 노파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가 하여 다시 한 번 어머니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표정을 조용히 지켰다. 험하게 주름져 간 입술이 움직거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손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하므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을 꾹 움켜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곧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뺨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미 시선과 손의 감각만으로써는 아들을 느껴 볼 수가 없는 듯이 아들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가져다 대어 보는 것이었다. 그는 가슴이 뭉클 뜨거운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순간 며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씀이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언제 돌아오나?”

“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돌봐 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의사도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들를 거예요.”

“오나.”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명하니 허공에 눈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있단다. 나이 들면 들어 갈수 [C] 록……. 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니, 제 할 일이 더 중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틋한 기대를 깨닫지 못하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었다.

그는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자기 손을 끌어당겨 입술 위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은 맥없이 그대로 떠밀어졌다. 그는 뼈만이 양상한, 여원 어머니의 손가락으로부터 어머니 눈 위로 시선을 옮겼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 버린 ⑪우리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다음날 그는 밀회 시간을 어기고 그대로 어머니 곁에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서였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집 앞에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47. 위 글의 서술상의 시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1) → 그날 밤 → 며칠 전 → 지금(2) → 다음날

- ①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 ② ‘그날 밤’과 ‘지금’(2)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 ③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 ④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이 가장 먼저이다.
- ⑤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48. ①~④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이다. ‘이것’을 매개로 주체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것’은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9. <보기>의 ①~④ 중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소설 읽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을 돋пуска. 그는 ①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줍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기도 하고, ②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펴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난 여행이 그렇듯 이 소설을 읽는 여성 역시 순조롭지 않은 암다. 작가는 ③외부 사물의 묘사로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기도 하고, ④예상 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50. [B]와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는 ‘그’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② [B]에서는 ‘비밀결사’가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C]에서는 ‘그’의 ‘할 일’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을 읽을 수 있어.
- ④ [C]에서는 ‘그’를 만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
- ⑤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들은 괄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들을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꾸중 듣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의 표정 속에는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내 몸에서 갑자기 모든 불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목을 조르던 공포와 긴장이 뜻밖에도 아주 빠르게 안도와 기쁨으로 변해 가기 시작했다. 거사는 실패했다. 그리고 거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자, 실패가 오히려 아주 당연한 귀결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불안과 공포에 면 자신이 나는 이 순간 견딜 수 없이 우스꽝스러웠다.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 온 온갖 불안에서 나는 불과 몇십 초 사이에 깨끗하게 해방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나는 또 한 번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다. 그것은 안도감에 잠긴 나를 뚱뚱이로 내려치듯이 통렬하게 후려쳤다. 누군가가 돌연 자리를 박차고 두 손을 높이 쳐들며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었다.

“조센 반자이(조선 만세)!”

기범이었다. 그는 우렁차게 만세를 부른 후, 그대로 앞좌석에 홀로 대똑하게 서 있었다. 장내는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기범에게 집중되었다. 학생들도 고관들도 현병들조차도 넋 나간 표정으로 기범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붙 뿐이었다. 그것은 무서운 폭풍을 내포한 폭발 직전의 서늘한 침묵이었다.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탄 듯한 한없이 낭패스러운 삭막한 침묵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주 긴 시간인 것도 같고 아주 짧은 시간인 것도 같았다. 식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현병들은 이윽고 긴장된 표정으로 저마다 긴 칼자루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범이 또 한 번 소리치면 식장에서 당장에 그를 체포할 듯한 협약한 기세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기범의 두 팔이 다시 번쩍 머리 위로 쳐들렸다.

“낫본 반자이(일본 만세)!”

침묵은 계속되었다. 현병들은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여전히 기범을 쏘아보고 있었고, 기범은 이번에도 만세 후에 여전히 앞좌석에 꽂꽂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아까와는 약간 성질이 달랐다. 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는 긴장 대신에 묘한 의문에 사로잡혔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기범을 향해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왜 조선 만세를 부른 후에 뒤따라 다시 일본 만세를 불렀는가? 너의 만세는 무슨 뜻인가? 너는 대체 어느 편인가? 그러나 이 의문도 뒤따라 곧 해답을 얻었다. 기범이 다시 두 팔을 쳐들고 제3의 만세를 외쳤기 때문이었다.

“다이토아 반자이(대동아 만세)!”

식장을 지배해 온 숨 막히던 긴장은 이 세 번째 만세로 깨끗이 해소되었다. 그는 첫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의 체면을 세워 주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만세로는 동지들을 위험에서 구해 준 것이다. 나는 사진이 끝난 한참 후에야 기범이 어째서 거사의 중임을 자청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사진에 이미 거사가 실패할 것을 예견했고, 만일 성공할 기미를 보였다면 처음부터 거사를 실패시킬 목적이었다.

[중략 줄거리] 기범은 일규를 배신한 적이 있음에도, 일규가 그리워 그의 장례식에 나타났다. 나는 그런 기범과 대화를 나눈다.

그럴듯한 음모였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너는 과령치범에 불과하지만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아무리 네가 잡아 혼들어

도 일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천만에, 나는 안다. 그놈은 운 좋은 삼류 무사(武士)에 불과했다. 뽑아 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몇들 어지게 해 온 놈이다. ①나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는 일규가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더없이 편안해진 후다. 이것이 바로 무사의 허풍스런 참모습이고 무사가 너희한테 존경과 사랑 받는 소치인 것이다.”

“너는 그럼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서 찾은 거냐? 왜 일규가 없어진 지금 살맛이 없다구 하는 거냐?”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광대 같은 주인 말이다.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무대를 비워 둘 순 없지 않나? 내가 일규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너석이 무대 위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 구설을 잘 해내기 때문이다.”

“좋다, 네 쪽은 그렇다 치자. 허지만 일규 쪽에서는 왜 너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냐?”

[A]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엔 그를 칭송할 악사(樂士)가 필요한 법이다. 칼이 허리에서 절그려져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찬의 노래를 읊을 수가 없다. 악사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이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탄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너는 그럼 무사 뒤에서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거냐?”

“②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겐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것이 즐거움이다. 나는 살고 있어서, 살아남아서 고마울 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에 너는 그 이상 무슨 뜻이 있다는 거냐?”

“사람이 사는 데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면 사람과 동물과 대체 뭐가 다른 거냐? 네놈의 그 추잡한 행각들을 변호하기 위해 너는 너 자신의 사는 의미까지 죽일 셈이냐?”

“네 말은 순서가 틀렸다. 사는 의미를 죽이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왔다. 세상은 서 푸어치 밥이나 먹여주고 우리한테 너무 많은 고통들을 강요한다. 너도 정신이 올바로 박혔으면 네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일제시대와 대동아전쟁, 조국의 해방과 남북 분단, 6·25 사변과 동족상잔, 4·19 의거와 5·16 혁명…… ③뭘 했냐 너는? 이때 너는 어디 있었나? 네가 한 일이 대체 뭐냐? 우린 모두가 살아남은 게 고작이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영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냥 뚱이나 싸고 아침저녁으로 자식들이나 만들었을 뿐이다. 36년 동안 일제하에 있으면서 이천만 동포는 무얼 한 거냐? 대체 그들이 무얼 했길래 일제가 물러가자 반민특위(反民特委)를 조직한 거냐?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엄청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비사(秘史)나 비록(秘錄)으로 공소 시효 지난 후일담으로나 나올 뿐이다. ④무수한 양심이란 것들이 그것들의 진행을 목격했지만 그것들이 진행될 동안은 누구 하나 죽소리 없었다. 그 많은 정의와 양심들은 그때는 모두 어디 틀어박혀 있은 거냐? 이것이 바로 네가 말하는 그 고결하고 존경 받을 만한 ‘의의 있는 삶’이라는 거냐? 우리는 악사다. 재산이라고는 아주 잘 트인 목청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다. ⑤무사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우리는 뒷전에서 잘한다. 읊소하고 소리나 쳐주면 되는 거다.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만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즐거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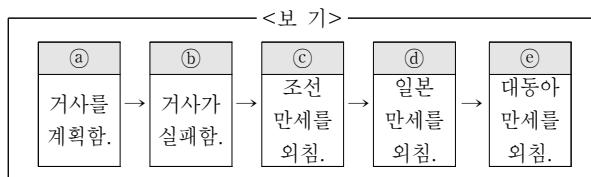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② 공간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인물의 말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① ㉠: 세상이 편안해진 후에야 행동한 것은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② ㉡: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③ ㉢: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생계유지에 무책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 누구 하나 꺽소리 없었던 것은 침묵으로 정의의 목소리를 대신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⑤ ㉤: 뒷전에서 잘한다는 말이나 하는 것은 이념에 따라 행동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40. <보기>는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기범이 Ⓐ에 참여한 이유를 ⑤가 끝난 한참 후에 깨달았다.
- ② ‘나’는 ⑤에 대해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 ③ ⑤를 듣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기범에게 집중되었다.
- ④ 현병들은 기범이 ④를 행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 ⑤ ⑤로 인하여 식장의 긴장된 분위기가 해소되었다.

41.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동정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의 행적을 언급하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 ④ 상황을 반전시키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있다.
- ⑤ 상대방에게 반문하며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⑤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위 작품에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침묵하다가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념을 따르기보다는 생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상황에서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절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⑦더구나 이리루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꾸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⑧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듣다는 것입니다. ⑨‘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아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 두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현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⑩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디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폐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⑪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 22-6평 18~21번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나? 네깐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나?”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평나 놀랐다. 기범이 그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나? 너희나?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나?”

⑦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眸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밀질로 걸어 찾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였던 과거의 ⑥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쳤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1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자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19.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①~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 ② ②: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 ③ ③: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 ④ ④: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⑤ ⑤: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20. ①, 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 ② ①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 ③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①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④ ‘저’가 ①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②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 ⑤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①에서 ②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체면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일규의 죽음이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되겠군.